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8. 9일(목)	담당부서	전력진흥과
담당	과장 남경모 (044-203-5260)	담 당 자	사무관 조영길(044-203-5261)

▷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아파트의 7.8~8.7일(폭염일 23일 포함) 전기사용 데이터 분석결과, 전년동기 대비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kWh 증가, 요금은 평균 2만원 증가**

▷ **출산가구**의 경우, 오늘부터 전기요금 할인 대상지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로도 변경 가능**

▷ **AMI 설치가구**는 검침일 변경 희망시 **즉시 조치**, **AMI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자율검침제도 도입**

폭염기간 전기사용량 데이터 분석

○ **7.8~8.7일**(서울기준 폭염일수 23일 포함) **한달간**, 스마트미터(AMI)가 구축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78%인 18,357가구**가 전년동기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 이들 가구의 7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93kWh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에서 확대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

< '18.7.8~8.7일 한달간 전기사용량 증가분포 (전년동기 대비) >

	증가				
	50kWh미만	50~100kWh미만	100~200kWh미만	200kWh이상	합계
가구수	6,317	5,381	5,012	1,647	18,357
비중(%)	34.4	29.3	27.3	9.0	100

○ 한편, 전년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0,556호로서 한시 할인대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0,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18.7.8~8.7일 한달간 전기요금 증가분포 (전년동기 대비) >

		감소	증가					
			1만원미만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합계
대책前	가구수	5,165	6,442	7,458	3,010	1,326	121	18,357
	비중	22.0	27.4	31.7	12.8	5.6	0.5	78.0
대책後	가구수	10,556	6,869	4,262	1,225	545	65	12,966
	비중	44.9	29.2	18.1	5.2	2.3	0.3	55.1

※ 동 폭염기간 전기사용량 데이터 분석자료는 AMI가 보급된 일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참고용으로 전체 가구의 사용량이나 요금을 정확히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주소지 변경

○ 8.7일 발표한 대책으로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게 됨 (월 1만 6천원 한도)

○ 그러나,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나타남

○ **오늘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희망검침일 제도에 따른 검침일 변경

○ **한전**은 다음과 같이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면 보완하였음**

○ 우선, 스마트미터(AMI)가 구축되어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계획**

○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검침일을 변경**하되,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하여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하여 검침일 조정을 용이하게 할 계획

* 자율검침 제도 :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과,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

○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스마트미터(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임.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영길 사무관(☎ 044-203-52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